

# SK, “먹히느냐!” “자작극이냐!”

## 소버린자산운용의 배후지원 관심집중 ... 국내 전문가보다 한수 위

세계 3위 그룹인 SK그룹이 소버린자산운용이라는 유럽계 자본의 주도면밀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면서 소버린자산운용의 정체 못지않게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배후지원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그동안 SK그룹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서도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헤지펀드들의 훌륭한 먹이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SK가 일시적 경영공백 상태에 빠진 약점을 비집고 절묘한 타이밍에 과감히 주식매집에 나섰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사정에 환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는 단독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또 SK 주식을 정확히 14.99%만 사들임으로써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면서 영향력은 극대화시켰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국내외 투자은행과 증권사, 로펌, M&A 부피크 등의 도움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주식매집 창구였던 도이치은행이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권거래법과 상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과 함께 SK의 지분구조와 시장동향에 대한 종합분석을 대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SK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작전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M&A 관계자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투자은행의 정보수집력과 국내법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도이치은행도 국내 브랜치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SK의 경영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버린자산운용 역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내시장에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로펌과 국내 증권사와도 상당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SK에 대해 충분한 자체 분석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자문을 맡은 리걸 어드바이저(Legal Advisor)로는 국내 로펌이 주목 대상으로 김&장, 세종, 태평양, 율촌, 한미 등 5대 메이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능력을 갖춘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장은 SK의 주식을 사들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즈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지분 취득 사전 신고업무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세종은 SK글로벌 채권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고 태평양은 또 다른 메가딜(Mega Deal)을 진행하고 있어 SK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21>